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발달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피해·친사회적 행동과의 횡·종단적인 관계

Concurrent and Prospectiv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Bullying, Victimization, and Prosocial Behavior

심 희 옥*

Sim, Hee-og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th to 6th grade children and instruments were th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the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the Self-Esteem Scale, and the Peer Relations Questionnaire. In the concurrent study, children lower in social skills and in self-esteem and external in locus of control reported more bullying and victimization. Children higher in social skills and in self-esteem and internal in locus of control reported more prosocial behavior. In the prospective study, children lower in social skills were more involved in bullying and victimization. Children higher in social skills reported more prosocial behavior. The effects of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on peer relations diminished over time. However, social skill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bullying, victimization and prosocial behavior up to two years later. Children lowe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were more vulnerable to peer victimization.

Key Words : 심리사회적 발달(psychosocial development), 또래 괴롭힘의 가해/피해 (bullying/victimization),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 접수 2002년 2월 28일, 채택 2002년 4월 12일

*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주거·가족아동학전공 부교수, E-mail : simh@kunsan.ac.kr

I. 서 론

학령기 아동의 또래 괴롭힘 문제가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동간의 소소한 갈등과 괴롭힘은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것이지만 정도가 지나친 부적절한 또래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아동의 발달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아동의 또래관계와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대한 연구가 있다(강진령, 유형근, 2000; 이춘재, 곽금주, 2000; 정태연, 김인경, 김은정, 2001; 최보가, 임지영, 1999; 한종철, 김인경, 김은정, 박윤창, 정태연, 1999; 한종철, 김인경, 2000; Austin & Joseph, 1996; Craig & Pepler, 2000; Nansel, 2000; Nansel, Overpeck, Pilla, Ruan, Simons-Morton, & Scheidt, 2001; Olweus, 1993a; Olweus, 1993b; Perry, Kusel, & Perry, 1988; Rigby & Slee, 1993; Schwartz, Dodge, & Coie, 1993; Slee, 1993; Slee & Rigby, 1993). 이런 연구들은 아동의 부적절한 또래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담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아동의 또래관계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횡단연구와 더불어 종단연구가 요구된다. 종단연구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아동의 발달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영향의 증대나 감소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우리는 자칫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기 쉬우나 여러 연구들이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 역시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한다(한종철 외, 1999; Austin & Joseph, 1996; Craig & Pepler, 2000; Slee, 1993, 1995). 이는 원만한 또래관계를 위하여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학교 현장에서 왕따 같은 또래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이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아동들에게 발달시키고 싶은 심리적 특성은 친사회성일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타인을 돕거나 도우려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Floody(1980)는 친사회적 행동은 반사회적 행동 즉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는 행동과 반대되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상호작용의 한 방법이라고 한다. 친사회적인 행동은 공격성이나 폭력행동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여 친사회적 행동을 자주 하는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친사회적인 아동은 또래 괴롭힘 가해 같은 부적절한 또래관계 행동에 덜 관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Rigby와 Slee(1993)처럼 개인간 관계에 대한 측면으로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행동과 함께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을 돕는 행동 같은 또래관계 문제상황에서 또래간에 있을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동과 더불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친사회적인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특성을 살펴 보려한다.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은 사회적인 유능감(social competence)이라는 보다 더 큰 개념의 한 구성체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행하는 학습된 행동으로 일정한 사회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가치가 있으며, 때때로 개인과 서로에게 유익한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말한다(Gresham & Cavell, 1986). 아동기를 통해 아동은 정서와

인지적인 조망능력이 향상된다. 사회상황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 대안을 만드는 능력은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다. 아동에게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대인간의 관계유지와 형성에 중요할 수 있다.

또래지위집단과 사회적 기술과의 관련에 관한 연구들은 거부되거나 고립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다고 한다(Dodge, 1983). 아동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상황에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또래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

통제의 소재(locus of control)는 내적인 면에서 외적인 면으로 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Rotter, 1966). 내외 통제성이라는 것이 아동의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내적인 통제성은 어떤 사건에 대한 통제감이 나 자신 안에 있다는 생각이나 느낌이고, 외적인 통제성은 어떤 상황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영향력 발휘가 나의 능력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들은 자기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닌가하는 신념인 내외 통제감이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 행동의 효율성을 다르게 한다고 한다(Dodge & Feldman, 1990; Rosenbaum, Wolfer, & Visintainer, 1979).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상황의 결과를 통제하기 쉽고 더 적응적이기 때문에 외적인 통제감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아동의 생활에 대한 믿음 체계가 또래관계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다.

Slee(1993a)는 5, 6, 7학년생의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 가해자가 외적인 통제감을 더 갖는다고 하고, 5-15세 대상의 연구(Slee, 1993b)에서는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한다는 아동이 더욱 외적인 통제성을 보였다고 한다. 이경남(2001)은 4, 6학년에게서 통제소재가 외재적일

수록 아동은 또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 귀인양식과 아동의 또래지위집단과의 관련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또래간의 인기정도가 내적인 통제와 관련이 있고(Hymel, Freigang, Franke, Both, Bream & Borys, 1983), 인기 있는 아동이 거부아 보다 상황을 더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한다(Sobol & Earn, 1985). 이런 귀인양식에 대한 연구는 또래간의 인기 정도와 사회적인 효율성이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 존중감이란 자아나 자기 개념의 평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말한다. Rosenberg와 그의 동료(1989)에 의하면, 자아 존중감이란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로 인간은 자기 존중의 감정을 보호하고 진작시키고자 하는 보편적인 욕구가 있다고 한다.

또래 괴롭힘의 가해나 피해 연구에서 가해자의 자아 존중감에 대한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가해자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보고가 있다(이민아, 1998; 한종철 외, 1999; Olweus, 1978). 그러나 O'Moore와 Hillery(1991)는 7-13세 아동에게서 그리고 Austin과 Joseph(1996)는 8-11세 아동에게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자아가치감이 낮았다고 한다. 가해와 자아 존중감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으나 피해자는 자아 존중감이 낮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Rigby & Slee, 1991, 1993; Slee & Rigby, 1993). Rigby와 Slee(1993)는 12-18세 대상의 연구에서 높은 자아 존중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관련이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측면으로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인 행동이 횡단(연구 1)과 종단(연구 2)적으로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심리사회적인 발달 측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이들은 비수한 제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아동의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인 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횡단연구는 지금, 현재의 심리사회적인 측면과 아동의 적절하거나 부적절한 또래관계와의 관련을 밝힐 수 있게 해주고, 종단연구는 이 심리사회적인 측면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영향의 변화를 알게 해 줄 수 있다.

연구 1(횡단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연구 2(종단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은 1년 후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2. 아동의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은 2년 후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II-1. 연구 1의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K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생 247명으로 남아가 134명(54.3%), 여아가 113명(45.7%)였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11-12세이고, 평균연령은 11.80세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4.9%, 대학교 졸업은 42.9%이고, 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31.2%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은 52.6%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6.0%이고, 대학교 졸업은 25.1%였으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18.6%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은 6.1%였다.

2. 측정 도구

1) 사회적 기술

Inderbitzen과 Foster(1992)의 10대의 사회적 기술 목록(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받은 긍정, 받은 부정적인 사회상황의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정도를 1-6점 척도로 평가한다. 긍정적인 상황의 한 문항은 “친구가 숙제를 도와 달라고 하면 도와준다”이고, 부정적인 상황의 한 문항은 “나는 다른 애들이 실수를 하면 비웃는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α 는 .85였다.

2) 내외 통제성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내외 통제 척도(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for Children) 간략형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아동의 내적이고 외적인 통제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나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한 문항을 예로 들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이다. “아니오”는 1점으로 “예”는 2점으로 하여 응답을 점수화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성향이 내적임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는 .70였다.

3)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 측정은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Rosenberg(1965)의 자아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했는데 아동은 자신의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자아 존중감 정도를 “정말 그렇다”에서 “정말 그렇지 않다”의 1-4점 척도로 반응한다. 한 문항을 예로 들면, “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는 .76였다.

4)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Peer Relations Questionnaire(Rigby & Slee, 1993)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질문의 두드러짐을 없애기 위한 보충 문항인 5문항을 포함해, 또래 괴롭힘의 가해를 묻는 6문항, 피해를 묻는 5문항, 친사회적 행동을 묻는 4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정도를 “결코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가한다. 또래 괴롭힘 가해행동 문항의 한 예

는 “나는 약한 애들을 괴롭힌다”이고, 또래 괴롭힘 피해행동 문항의 한 예는 “다른 애들이 날 놀리고 괴롭힌다”이며, 친사회적 행동 문항의 한 예는 “나는 괴롭힘 당하는 애들을 돕는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가 높고, 친사회적 행동은 많이 함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α 는 또래 괴롭힘의 가해는 .81, 피해는 .77, 친사회적 행동은 .62였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아동은 중소도시인 K시내에서 상중하의 경제적인 여건이 고루 섞인 한 개 초등학교 재학생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번안과정에서 적합한 언어 선택과 아동의 이해를 위해 연구의 해당 연령 아동과 학교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하여 완성되었다. 질문지는 학교장의 협조로 각 반 담임 선생님이 자유로운 시간에 대상 아동들에게 제시하였다.

연구 1의 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측면으로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이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인 행동과 횡단적으로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일원변량분석을 하였고, 성에 따른 차이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과 심리사회적 발달의 정도에 따른 집단에 대해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Ⅲ-1. 연구 1의 연구결과

1. 아동의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연구 1의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기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괴롭힘의 가해는 남학생이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사회적 기술이 낮고, 외적인 통제감을 지니며, 자아 존중감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이 높고, 내적인 통제감을 지니며,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과 친사회적 행동은 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의 상중하 집단별로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 각각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X > M + SD$ 인 경우는 사회적 기술이 높고, 내적인 통제감을 지니며, 자아 존중감이 높은 집단, $M - SD < X < M + SD$ 인 경우는 중간 집단, $X < M - SD$ 인 경우는 낮은 집

<표 1> 성,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1. 성*	-						
2. 사회적 기술	-.19***	-					
3. 내외 통제성	-.08	.36****	-				
4. 자아 존중감	-.01	.33****	.39****	-			
5. 또래 괴롭힘 가해	.15*	-.44****	-.23****	-.25****	-		
6. 또래 괴롭힘 피해	.06	-.29****	-.32****	-.35****	.41****	-	
7. 친사회적 행동	-.08	.48****	.29****	.33****	-.01	.01	-

*여자=0, 남자=1. *p<.05; ***p<.001; ****p<.0001.

<표 2>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의 일원변량분석

변인	사회적 기술	M			Duncan	내외 통제성	M			Duncan	자아 존중감	M			Duncan
		M	F	P			M	F	P			M	F	P	
또래 괴롭힘 가해	상	6.91	F=31.38 P<.0001	A	B	상	8.36	F=7.37 P<.001	A	B	상	7.97	F=5.56 P<.001	A	
	중	9.17				중	8.95				중	9.20			
	하	11.75				하	10.85				하	10.28			
또래 괴롭힘 피해	상	7.07	F=9.34 P<.0001	A	B	상	6.46	F=13.83 P<.0001	A	B	상	6.92	F=12.90 P<.0001	A	
	중	8.20				중	8.14				중	8.13			
	하	9.78				하	10.08				하	10.10			
친사회적 행동	상	11.86	F=21.84 P<.0001	A	B	상	11.18	F=7.00 P<.001	A	B	상	11.23	F=8.40 P<.0001	A	
	중	10.00				중	10.22				중	10.14			
	하	8.98				하	9.18				하	9.23			

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2>의 집단별 분석에 의하면, <표 1>의 상관분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술이 낮을수록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에 더 많이 연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적인 통제감을 지닌 아동일수록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에 덜 연루됨을 알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술이 높고, 내적인 통제감이 발달되고,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더 친사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을 고려한 이원변량분석에서 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또래 괴롭힘 가해의 경우 통제소재와 자아 존중감이고, 남학생(M=9.60)이 여학생(M=8.68)보다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의 경

우, 성과 통제소재가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였다($F_{2, 241}=3.09, p<.05$) <그림 1>. <그림 1>에 의하면, 내외 통제감 중간집단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성과 내외 통제성의 집단별 친사회적 행동

II-2. 연구 2의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년이 경과한 종단연구는 K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5학년 때 12월과 1년 후인 6학년 때 12월에 행해졌고, 2년이 경과한 종단연구는 K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4학년 때 12월과 2년 후인 6학년 때 12월에 행해졌다. 조사대상자 수는 1년이 경과한 후, 239명 중 52명(22.0%)이 탈락해 187명으로 남아가 96명(51.3%), 여아가 91명(48.7%)였다. 5학년 때 연구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10-11세이고, 평균연령은 10.80세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5.5%, 대학교 졸업은 40.64%이고, 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26.2%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은 54.0%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6.3%이고, 대학교 졸업은 22.5%였으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19.8%이고, 사무직과 관리 및 전문직은 6.4%였다.

2년이 경과한 후, 조사대상자 수가 242명 중 46명(19%)이 탈락해 196명으로 남아가 103명(52.6%), 여아가 93명(47.4%)이었다. 4학년 때 연구대상자의 연령 범위는 9-10세이고, 평균연령은 9.80세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6.4%, 대학교 졸업은 37.8%이고, 아버지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29.1%이고, 사무직과 관리직은 41.4%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

교 졸업이 64.3%이고, 대학교 졸업은 21.4%였으며, 어머니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사람 중 자영 상공업이 16.8%이고, 사무직과 관리직은 8.1%였다.

2. 측정 도구

1) 사회적 기술

연구 1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했고,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α 는 1년이 경과한 연구의 경우 .80였고, 2년이 경과한 경우는 .74였다.

2) 내외 통제성

연구 1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했고,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α 는 1년이 경과한 연구의 경우 .68였고, 2년이 경과한 경우는 .60였다.

3) 자아 존중감

연구 1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했고,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α 는 1년이 경과한 연구의 경우 .76였고, 2년이 경과한 경우는 .66였다.

4)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 연구 1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했고, 이 측정도구의 Cronbach α 는 1년이 경과한 연구의 경우 또래 괴롭힘 가해는 .82, 피해는 .78, 친사회적 행동은 .62였고,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래 괴롭힘 가해는 .82, 피해는 .77, 친사회적 행동은 .61였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연구 1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III-2. 연구 2의 연구결과

1. 아동의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은 1년 후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연구 2의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

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여학생의 사회적 기술이 남학생보다 높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또래 괴롭힘의 가해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경향($p < .10$)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래 괴롭힘 가해는 사

<표 3> 성, Time 1의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과 1년이 경과한 Time 2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1. 성 ^a	-						
2. T1 사회적 기술	-.20*	-					
3. T1 내외 통제성	-.01	.37****	-				
4. T1 자아 존중감	-.00	.29****	.46****	-			
5. T2 또래 괴롭힘 가해	.14 [†]	-.27****	-.09	-.05	-		
6. T2 또래 괴롭힘 피해	.05	-.12	-.25****	-.19**	.39****	-	
7. T2 친사회적 행동	-.11	.30****	.11	.21***	.03	.06	-

^a여자=0, 남자=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 $p < .0001$.

<표 4> 1년이 경과한 Time 2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Time 1의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의 일원변량분석

변인	사회적 기술	M	F	Duncan	내외 통제성	M	F	Duncan	자아 존중감	M	F	Duncan			
또래 괴롭힘 가해	상	8.35	F=2.57 P<.10	A	상	8.50	F=1.58 NS		상	8.46	F=1.10 NS				
	중	9.33		A B		중				9.36			중	9.40	
	하	9.92		B		하				9.80			하	9.35	
또래 괴롭힘 피해	상	7.78	F=.39 NS	A	상	7.22	F=4.15 P<.05	A B	상	7.46	F=9.62 p<.0001	A			
	중	8.28				중				8.20			중	7.91	A
	하	8.24				하				9.44			하	10.61	B
친사회적 행동	상	11.30	F=6.72 P<.01	A	상	10.25	F=1.24 NS		상	10.82	F=1.79 NS				
	중	9.92		B		중				10.26			중	10.10	
	하	9.76		B		하				9.52			하	9.74	

회적 기술이 높았던 아동이 낮고, 또래 괴롭힘의 피해는 외적인 통제감을 지니고, 자아 존중감은 낮았던 아동에게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사회적 발달 정도에 따른 집단별 분석은 <표 4>와 같다. 연구 1과 같은 방법으로 심리사회적인 차원을 상중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사회적 기술의 영향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 정도에 따라 아동을 집단으로 나눌 때 약해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이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의 가해경험이 적은 경향(p<.10)을 보인다. 사회적 기술이 높은 아동이 여전히 친사회적임을 알 수 있다. 내적인 통제감을 지닌 아동일수록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적게 당하고,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적게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성을 고려한 이원변량분석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의 경우 성과 사회적 기술이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보였다(F_{2, 181}=3.45, p<.05) <그림 2>. <그림 2>에 의하면, 사회적 기술이 높은 집단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덜 당하고 있고,

중간집단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 괴롭힘을 적게 받고 있는 경향(p<.10)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성과 사회적 기술의 집단별 또래 괴롭힘의 피해

2. 아동의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은 2년 후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연구 2의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성, Time 1의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과 2년이 경과한 Time 2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1. 성*	-						
2. T1 사회적 기술	-.07	-					
3. T1 내외 통제성	.05	.36****	-				
4. T1 자아 존중감	-.01	.21****	.35****	-			
5. T2 또래 괴롭힘 가해	.13 ⁺	-.28****	-.05	.05	-		
6. T2 또래 괴롭힘 피해	.02	-.23****	-.13 ⁺	-.18**	.39****	-	
7. T2 친사회적 행동	-.08	.21****	.01	.02	.03	.08	-

*여자=0, 남자=1. ⁺p<.10; *p<.05; **p<.01; ***p<.001; ****p<.0001.

<표 5>에 의하면, 또래 괴롭힘의 가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하는 경향(p<.10)을 보이고 있다. Time 1, 즉 2년 전에 사회적 기술이 높았던 아동일수록 또래 괴롭힘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이 적고 친사회적 행동은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2년 전에 내적인 통제감이 발달된 아동일수록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적게 경험하는 경향(p<.10)이 있다. 2년 전에 자아 존중감이 높았던 아동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적게 보고하고 있다.

심리사회적 발달 정도에 따라 집단별로 일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심리사회적인 차원은 연구 1과 같은 방법으로 상중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심리사회적 변인을 집단으로 나눌 때 2년 전의 사회적인 기술만이 또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기술이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에 적게 연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술이 높았던 아동이 더 친사회적이다. 성을 고려한 이원변량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없었다.

<표 6> 2년이 경과한 Time 2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Time 1의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의 일원변량분석

변 인	사회적 기술	M			Duncan	내외 통제성	M			Duncan	자아 존중감	M			Duncan
		M	F	Duncan			M	F	Duncan			M	F	Duncan	
또래 괴롭힘 가해	상	8.00	F=7.03 P<.001	A	상	9.05	F=.08 NS	Duncan	상	9.18	F=.04 NS	Duncan			
	중	9.08		중	9.22	중			9.17						
	하	10.73		하	9.32	하			9.34						
또래 괴롭힘 피해	상	7.07	F=4.07 P<.05	A	상	7.77	F=.91 NS	Duncan	상	7.64	F=1.64 NS	Duncan			
	중	8.13		중	8.14	중			8.11						
	하	9.18		하	8.71	하			8.91						
친사회적 행동	상	10.90	F=3.21 P<.05	A	상	10.23	F=.08 NS	Duncan	상	10.23	F=1.12 NS	Duncan			
	중	10.14		중	10.10	중			10.26						
	하	9.52		하	10.23	하			9.63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심리사회적 측면으로 사회적 기술,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감이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과 횡단과 종단적으로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였다.

횡·종단연구를 통합해 심리사회적 변인별로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을 보면, 먼저 **사회적 기술의 경우**, 사회적 기술은 장단기적으로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인다. 같은 시기는 물론 2년의 시간 경과에도 사회적 기술이 낮을수록 아동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에 더 연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 역시 아동의 또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 원만한 또래관계를 갖지 못하고 또래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등 부적절한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기술은 성격처럼 상당히 지속적인 한 개인의 특질로 보이지만(Merrell & Gimpel, 1998)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또래관계 문제와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기술 부족이 상당히 누적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자에게 타인의 정서와 인지에 대한 조망기술 훈련 같은 사회적 기술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원만한 또래관계를 위하여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에게도 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동시기는 물론 5학년과 4학년 때 사회적 기술이 높았던 아동이 6학년 때 더욱 친사회적이었다. 이는 쉽게 이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기술이 높은 아동이 자신의 편함이나 이익보다는 또래의 요구에 민감하고 이들을 염

려하며 배려적임을 알 수 있다.

1년이 경과한 종단연구에서 사회적 기술의 상위 집단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적게 보고하고, 중간인 집단에서는 여학생이 피해를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아동 중후기 아동은 성역할에 대해 이미 확고하게 남녀 다르게 사회화(Gilligan, 1982) 되어 있을 수 있어 사회적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서 남녀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사회적 기술의 발달에서 남학생은 어느 적정수준에서만 또래 괴롭힘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내외 통제성의 경우, 장단기적으로 생활 속에서 상황이나 일의 결과에 대해 내적으로 귀인 할수록 또래 괴롭힘의 가해에 적게 관여하고 피해 역시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성향이 외적이라는 말은 상황이나 일의 결과를 외적으로 귀인하여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또래 괴롭힘의 가해에 가담하는 아동은 이 때문에 또래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 구실을 찾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외 통제감은 장기적인 차원의 또래관계에서 피해 당하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어떤 상황에 대해 통제감이 스스로에게 없다고 생각하므로 그저 외부의 손에 의지하고 묵묵히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쉬울 것이다. 이는 어떤 상황의 문제를 자신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체계가 장단기적으로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적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시기에 내적인 통제감이 발달된 아동이 또래들을 잘 돕고 가진 것을 나누는 등 더

욱 친사회적였다. 이는 내적인 통제감이 발달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신보다 타인의 복지에 더욱 민감하고 타인을 배려함을 알 수 있다.

동시기에 내적인 통제가 중간인 집단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기술과 마찬가지로 내외 통제성 발달 정도에 따라 또래관계에서 남녀차가 있음을 말해준다.

자아 존중감의 경우, O'Moore와 Hillery (1991)와 Austin과 Joseph(1996)의 연구결과처럼 동시기에 자아 존중감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는 서로 부적절로 관련되어 있어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지각하는 아동이 부적절한 또래관계에 덜 연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동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높게 생각할수록 또래를 덜 괴롭히고 또한 이런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덜 당한다는 것이다. 내외 통제성과 마찬가지로 자아 존중감도 장기적으로 또래 괴롭힘의 피해와 관련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즉 장기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igby(1996)는 낮은 자아 존중감은 또래 괴롭힘 피해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원인일 수 있다며,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또래 괴롭힘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내보이는 것이 되어 이 때문에 이런 아동은 당연히 또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동 중후기 아동이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는 것이 장단기적으로 원만한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정은 물론 학교생활 속에서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상이 발달하도록 성인들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동시기에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

각하고 높게 평가할수록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자기상을 지닌 아동이 더욱 친사회적이라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Shaffer, 1994).

본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는 서로 정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가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는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대응공격이나 기타 이유로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두 가지의 부적절한 또래관계가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간의 순환과정에 대한 연구 또한 의의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또래 괴롭힘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들처럼 사회적 기술이 낮고, 외적인 통제감을 지니며, 자아 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사회적인 발달 측면에서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 못지 않게 가해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와 더불어 가해자도 심리사회적인 발달에서 부족한데 특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변인은 사회적 기술로 보여진다. 이는 사회적 기술의 발달 정도가 부적절한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임을 말해준다. 장기적으로, 심리사회적인 발달 부족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와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나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덜 발달된 아동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친사회성을 발달시키려면 먼저 그들의 사회적 기술과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키고, 또한 아동이 상황과 일의 결과에 대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생활 속에서 자율감이나 성취감을 경험할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한 도시의 일부 학생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자료수집이 자기보고에만 의존해 결과의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에 대한 자기보고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아동의 부적절한 또래관계에 대해 부모, 교사, 또래에 의한 보고가 병행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발달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인 행동과의 관계를 횡단과 더불어 종단적으로 탐색하여 심리사회적인 측면의 장단기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

또래 괴롭힘의 유형을 가해자나 피해자와 더불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한종철 외, 1999; Austin & Joseph, 1996; Nansel, 2000; Nansel, Overpeck, Pilla, Ruan, Simons-Morton, & Scheidt, 2001)들이 있는데 이처럼 또래 괴롭힘 유형을 가해, 피해, 가해/피해로 세분한 연구나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인 피해(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혹은 이보다 더 다양한 형태(Kochenderfer & Ladd, 1996)로 또래관계와 심리사회적인 측면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연구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강진령·유형근(2000). 집단 괴롭힘. 서울: 학지사.
- 이경남(2001). 아동의 또래 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8), 37-52
- 이민아(1998). 초등학생의 집단 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자아 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춘재·곽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정태연·김인경·김은정(2001). 집단 따돌림의 측정 방법에 따른 행동평가의 차이: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45-159.
- 최보가·임지영(1999).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한종철·김인경·김은정·박윤창·정태연(1999).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1차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 147-150.
- 한종철·김인경(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03-114.
-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in 8 to 11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Craig, W., & Pepler, D. J. (2000). Observation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the school yard. In W. Craig (Ed.),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 116-136). Malden, Massachusetts: Blackwell.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Dodge, K. A., & Feldman, E. (1990). Issues in social cognition and sociometric status. In S. R. Asher

-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19-15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oody, D. R. (1980). *An early childhood educator's guide to prosocial development* (Report No. PS 011 679),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Baron Coun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192 882). 1-5.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 Gresham, F. M., & Cavell, T. A. (1986). Assessing adolescent social skills. In R. G. Harrington (Ed.), *Testing adolescents : A reference guide for comprehensive psychological assessments* (pp. 93-123). Kansas : Test corporation of America.
- Hymel, S., Freigang, R., Franke, S., Both, S., Bream, L., & Borys, S. (1983, June). *Children's attributions for social situations : Variations as a function of social status and self-perception variabl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anadi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Inderbitzen, H. M., & Foster, S. L. (1992). The teenage inventory of social skills :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Assessment, 4*(4), 451-459.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 Manifestations and relations to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267-283.
- Merrell, K. W., & Gimpel, G. A. (1998).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treatment*. Mahwah, NJ : LEA.
- Nansel, T. R. (2000, April). *Bullying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 Co-occurrence and associations with psychosocial risk factor*.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Chicago, Illinois.
- Nansel, T. R., Overpeck, M., Pilla, R. S., Ruan, W. J., Simons-Morton, B., & Scheidt, P. (2001). Bullying behaviors among US youth.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5*(16), 2094- 2100.
- Nowicki, S. Jr., & Strickland, B. R. (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48- 154.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 Hemisphere, Wiley.
- Olweus, D. (1993a). *Bullying at school :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 Blackwell.
- Olweus, D. (1993b).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ph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 315-341). Mahwah, NJ : LEA.
- O'Moore, A. M., & Hillery, B. (1991). *What do teachers need to know? in Bullying A practical guide for coping for schools*. Harlow : Longman Group.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igby, K. (1996). *Bullying in schools : And what to do about it*. London : Jessica Kingsley.
- Rigby, K., & Slee, P. T. (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 Reported behaviour and attitudes to victim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 615-627.
- Rigby, K., & Slee, P. T. (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1), 33-42.
- Rosenbaum, F., Wolfer, J., & Visintainer, M. (1979). Coping behavior and locus of control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47*, 118-13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1004-1018.
- Rotter, J.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locus of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1-28.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 Shaffer, D.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3rd.). Pacific Grove, CA : Brooks/ Cole.
- Slee, P. T. (1993a). Bullying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its nature and the effects of social cognitio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87, 47-57.
- Slee, P. T. (1993b). Bullying at school : It's hard not to feel helpless. *Children Australia*, 18(4), 14-16.
- Slee, P. T. (1995).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depression among Australian prim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57-62.
- Slee, P. T., & Rigby, K. (1993). The relationship of Eysenck's personality factors and self-esteem to bully-victim behaviour in Australian schoolboys. *Journal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2), 371-373.
- Sobol, M. P., & Earn, B. M. (1985). What causes mean : An analysis of children's interpretations of the causes of social experi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137-149.